

原油價格 하락과

石油政策의 展開

지난 해 가을 주요 아랍產油國에 의해 시작된 油價 戰爭은 최근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2월초 國際石油市場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OPEC(石油輸出國機構) 產油國들이 회합을 가졌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石油會社임원, 政府관리, 은행전문가, 정치분석가, 石油 仲介商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石油市場의 불안정 상태에서 초래된 이러한 油價戰爭은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에너지價格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몰아갈 전망이다, 중국에는 石油생산국과 石油소비국 사이에 모종의 경제관계 조정이 불가피해 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OPEC가 입을 損失

대부분의 石油생산국들이 가격은 고하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씌움으로써 앞으로 예견되는 중대한 변화는:

- ① OPEC와 非OPEC 산유국 사이에 石油價格 인하 경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산유국들의 국제시장 통제능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며,
- ② 인구가 많고 가난한 산유국, 즉 멕시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등과 비교적 부유하나 石油價格 인하 때문에 오는 財政赤字를 메꾸기 위해 생산을 대폭 증가시켜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 사이에는 국교상의 갈등이 더욱 深化될 것이며,
- ③ 石油 소비국, 특히 서방의 石油 소비국들은 石油가격 인하에 따른 재정흑자를 에너지稅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국고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④ 石油會社나 산유국들이 中間 브러커(Middlemen)를 거치지 않고 직접 石油거래를 하게 될 것이므로 石油 去來商(Oil Trader)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石油가격은 점차 下向勢를 보일 듯

대부분의 國際石油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앞으로 몇년간은 낮은 값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African Middle East Petroleum Group會長인 Fakhry Abdelnour씨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石油가격은 배럴당 14~18달러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 北海의 기준 原油인 브렌트油의 3月分 인도가격이 배럴당 16.95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최근 배럴당 15.50달러까지 내려갔던 것보다는 약간 상회한 가격이나, 1985년말 거의 30달러였던 가격에 비하면 예상외의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石油가격이 배럴당 14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原油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생겨 날 것이다. 즉 石油 소비국에서는 關稅 및 輸入稅 등을 부과하게 되고, 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原油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중국에는 原油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英國 정부 및 英國 石油會社에 대한 에너지 고문인 런던의 Ian Smart씨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石油가격의 하락에서 오는 정치적, 경제적인 심각한 사태를 감안할 때 石油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배럴당 14~18달러선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가 지난 10월 이후 그 산유량을 450萬b/d로 증가시킨 이후 추가생산분을 흡수할 만한 실제 石油의 수요가 없었으므로 石油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나, 石油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石油가격이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지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취해지리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石油가격이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重油(Heavy Fuel-Oil) 가격은 石炭가격보다 더 싸게 될 것이며, 이런 低價格 상황하에서는 자연히 重油의 수요가 증가되고 최소한 하루 150萬 배럴의 重油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重油나 기타 다른 연료를 動力으로 사용하는 많은 산업들이 主動力源을 石油쪽으로 돌려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原油값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石油 최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全 세계산유국 특히 非OPEC 산유국들이 國際 石油生産分擔條約(International Oil Production Sharing Pact)에 가담하여 산유국들이 石油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각국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약 1,700億배럴의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0월 이후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 국제原油가격을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몰아부친 장본인이다.

사우디는 그의 대표적인 지지 세력인 쿠웨이트와 더불어 서방의 주요 非OPEC 국가인 英國과 노르웨이로 하여금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정책적인 투쟁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우디는 그들의 石油가격을 더 낮추어 北海의 石油생산(350萬b/d)이 타산이 맞지 않도록 하여 英國과 노르웨이의 石油稅 및 石油輸出 收入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체 수상이 이끄는 英國의 보수당 정권은 北海의 石油은 국영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생산을 촉구하고 있는 現 國際原油市場의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일정량의 生産 割當制度를 받아들인다는 사우디의 제의를 일축하고 있다.

지난 달 OPEC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던 노르웨이도 최근 英國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꿈꾸기를 뺐다.

이러한 英國의 견해는 서방의 에너지 전문가나 산업계에서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들은 90%의 北海産 原油가 배럴당 5~8달러의 低生産原價로 생산될 수 있으며, 종전 北海의 石油輸入額을 180億달러로 추정했으나, 최근의 石油價 인하로 50億달러 내지 80億달러의 감수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石油輸入이 GNP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OPEC국가와는 달리 英國은 GNP의 6%가 石油에서 나오고 있을 뿐이다. 더우기 정부관리들은 石油생산을 조절하게 되면 대처 정부가 자유기업에 공약한 공약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고 石油會社들을 위기에 몰아 넣음은 물론 전체적인 국가 石油産業을 파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우디의 壓力

그러나 무엇보다도 英國으로서는 사우디의 아니꼬운 압력을 받고 있어 국가의 위신이 크게 失墜된 것은 사실이다. 英國의 태도는 사우디가 압력을 가해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를 잘 참아내자 하는 것 같다. 英國의 배후에는 日本과 21개국의 서방선진국이 체결한 만만찮은 國際同盟이 있다. 이들은 모두 國際에너지機構(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원국들로서 이 조직은 1973년 OPEC의 石油카르텔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機構였다. 그간 IEA가 추진해온 광범위한 石油資源보존, 전략적인 原油비축, 代替에너지源의 개발 등의 정책에 힘입어 石油소비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현재 IEA의 고위 당국자들은 石油값이 곤두박질하자 내심 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石油價 하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즉, 멕시코의 외채 상황에 따른 어려움, 美國을 위시한 서방제국의 石油産業 침체, 產油國內의 정치적인 소요 발생위험 등 때문에 IEA 설립목적 자체에 경제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美國의 고위 에너지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石油

가가 하락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石油價 하락으로 인한 이득을 정부가 취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稅金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石油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싼 石油을 공급하는 대신 정부의 稅收을 늘릴 수가 있을 것이다. 現在 서방세계의 정부관리들은 모두가 에너지 관세를 징수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稅收優先政策

美國의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輸入原油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揮發油稅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輸入原油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輸入原油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멕시코, 베네수엘라, 英國 등과 같은 美國의 우방국 原油에 대해서는 稅金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美國의 견해로서는 멕시코, 이집트와 같이 石油수출국이기도 하지만 부채를 안고 있어 石油稅入이 필요 불가결한 나라의 경우에 限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결을 지향하는 사우디 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은 상대방이 넘어지기 전에 OPEC 국가들이 먼저 쓰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Nalcosa Consulting Co. 社長이자 OPEC 대표단에 대한 고위층 고문인 Nordine Ait-Laoussine 氏는 OPEC 관리들에게 IEA Member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石油價格 하락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응은 OPEC에 대해 지극히 냉소적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정책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英國이나 노르웨이 마저도 어떤 OPEC 國보다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큰 나라들이다.

石油 증산과 價格하락

Laoussine 氏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現 石油市場 상황하에서 증산을 통해 일정한 石油收入을 유지해 가려는 산유국들의 노

력이 OPE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배럴당 20달러의 가격체제하에서 5개의 OPEC 회원국(알제리, 카타르,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은 이미 그들의 생산한계선에도 달하였고,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면 石油收入이 1985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으로 더 이상 증산을 할 수 없는 다른 두 OPEC 회원국(가봉, 에콰도르)은 이미 石油收入이 1985년에 비해 더 줄어들고 있다.

배럴당 15달러의 가격체제하에서 그밖의 OPEC 회원국(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들은 그 생산한계에 도달했고, 石油收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루 생산능력 1천만배럴의 사우디아라비아도 石油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1985년의 石油收入額보다 收入이 감소되고 그러한 상태는 1~2년동안 계속되리라고 관측하고 있다. 몇몇 OPEC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石油생산을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石油달러를 사우디의 경제에 투입하지는 사우디의 국내정책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1985년 사우디는 原油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스스로 경제불황에 밀려들었다. 이제 사우디는 다시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다.

카르텔 大型化

지난 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OPEC 회원국들에게 英國이 사우디의 권고대로 생산을 조절하게 된다면 노르웨이, 이집트, 오만 등의 非OPEC 국가나 기타 메이저들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OPEC은 회원국이 크게 증가되어 대규모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회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사우디의 이러한 전략보다는 그들의 石油收入이 감소되는 현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알제리와 같은 나라는 사우디가 英國, 美國과 모의하여 OPEC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사우디를 비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문제가 英國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서 英國을 비난하려 했던 의도와는 달리 전체적으로는 사우디가 石油價 파동의

원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집트의 石油相 Abdelhadi Kandil氏는 多數산 유국 상호간에 적대감정이 일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사우디가 이러한 政策을 펴나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집트와 같이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리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집트는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하루 30萬 배럴의 原油를 수출하고 있는데 450萬b/d를 수출하는 사우디와 같은 大輸出國이 경제해야 할 큰 量이 아니다.

사우디는 은행에 1,000億달러의 石油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국으로서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과 같이 빈곤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石油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다수의 OPEC 관리들은 사우디의 계획은 石油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石油가격을 한정없이 낮추려 하는 것이며, 이는 사우디가 앞으로 200년동안 팔아야 할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사우디 스스로가 시인했던 증산정책의 배경이었다. 이러한 사우디의 정책은 國際石油產業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서 특히 소위 네트백方式이라고 하는 새로운 販賣方式을 시도함으로써 석유 시장에서의 분쟁은 크게 번져 나갔다. 이는 原油購買者와 직접 계약을 하는 方式으로서 구매자가 原油를 정제한 다음 판매한 가격에 기초하여 原油가

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石油를 판매함으로써 石油仲介商(Trader : 原油를 사가지고 實消費者에게 넘기던 소위 Middlemen)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 방법은 원래 사우디가 창안해낸 방법은 아니다. 리비아와 이란이 처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지금와는 사우디가 그 막대한 양의 原油를 모두 이 방식에 의해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모든 산유국들이 앞다투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國際石油產業에 큰 체제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규모의 石油仲介商(Trans World, Marc Rich 등)들은 그들이 네트백方式에 의해 石油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정유시설을 사들이고 있다. 公示價格이나 月別 告示價格은 이제 하등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일단 산유국들이 네트백方式을 채택한 이상 당초의 네트백거래의 선의의 장점은 사라지고 구매자들은 보다 유리한 네트백거래를 강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石油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당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石油流通 방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의 石油產業은 현재 變革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로 인한 격동기를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石油價格面에서, 石油產業面에서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

〈近刊 Wall Street Journal誌〉

